

21세기 세계화 시대의 근로자 안전과 건강은 협력과 조화로



나는

산업재해율이 1965년도 5.9 %에서 이후 계속 감소하여 1999년말에는 0.7 %로 하향세여서 21세기에 접어들면서는 0 % 무재해 수준에 도달하기를 기대했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2001년 이후 증가하여 2003년에는 0.9 % 증가하였고 경제적 손실액도 12조 4천억에 이르고 있다. 또 근로자의 업무상질병 발생률도 증가 추세로 이를 분석해 보면 분진, 소음, 화학물질 등 기존의 직업관련성 질환은 감소하는 경향인데 반해 근로자의 생활습관과 작업자세와 방식에 기인한 뇌심혈관계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산업안전보건의 부정적 결과는 경제사회적 변동, 노동시장의 탄력성, 기술과 공정, 그리고 산업구조의 빠른 변화 등이 관련이 있지만 산업보건측면에서는 기존의 산업보건관리 정책과 제도에 대한 회의적 반성을 필요로 함을 시사한다.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2003년 7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전면 개정에 담아내어 근로자의 신중 업무상질병 예방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 틀에 담아낼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소프트웨어는 어떠한가?

이제 21세기 세계화로 의료시장개방이 수년 내에 들이닥칠 것이며 산업보건에 있어서도 예외 일 수 없고 특히 국가간 무역거래에 있어 산업안전보건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응해야 할 시점이다. 과거의 직업관련성질환인 진폐증, 소음성 난청, 납중독, 유기용제중독 등은 원인물질의 제거, 폐쇄, 물질대체와 직업성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등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전문적 지식에 따른 판단과 이에 근거한 관리에서의 의사결정권이 근로자와 사업주의 의사결정에 우위에 있었다. 그런데 신중 직업 관련성질환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예방을 하려면 생활습관 즉, 체중조절, 운동, 식습관, 음주, 흡연, 스트레스관리, 수면 등의 조절, 개선을 위한 근로자 자신의 내적 동기화가 필수적이며 내적 동기가 행동변화와 유지단계로 지속될 수 있는 정보제공과 환경 조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변화



윤 순 념

서울대 간호학교 교수
전 한국산업간호협회 회장

당사자인 근로자의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과학적 정보 제공과 사업장의 분위기와 환경조성과 이를 사업장의 방침으로 뒷받침 해주는 사업주의 이해와 인식이 수평적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규칙을 제정한 정부의 규칙이 사업장에서 실현 되는데는 노동부 산하조직의 제한된 인력과 기술, 지식체로는 천만 근로자의 건강행태를 변화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여 민간 산업안전보건단체와의 파트너십이 전제될 때 협력관계도 조화롭게 구축될 것이다. 그 간의 보건관리 체계가 60년대 이후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중·대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중점을 두었는데 비해 90년대 이후 산업안전보건의 사각지대였던 중소기업 내지 영세소규모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관리로 확대되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건관리체제를 민간단체의 참여를 통해 구축한 점은 높게 평가할 만 하다. 필자가 가장 잊지 못 할 추억으로는 한국산업간호협회장 역임인 1999-2001년에는 행자부의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처음 실시했던 서울시 지역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관리사업이었다. 산업보건계에서 유난히 재해율이 높은 소규모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그 필요성은 알지만 정책과 지원이 없던 시기였다. 주위에 냉소적 시선도 없지 않았지만 한국노총,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고대 작업환경측정기관, 노동부관계자분들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과 옷깃을 파고드는 추운 겨울에도 5,000여개 사업장의 4만6천명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일일이 간호사들이 방문하여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협소한 공간에서 보건교육을 하며 보호구 착용을 지도하고 아픈 근로자를 상담하고 위로하였다. 고용불안정시대, 경제사회적 침체기인 그 때에 영세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질병예방과 조기진단, 건강증진을 위해 힘을 돋궈준 간호사들께 따뜻하게 격려할 여유도 없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내달았으니 혼신의 힘을 다한 부회장과 이사진, 그리고 간호사들께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 글을 통해 진심으로 애뜻한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그 봉사와 헌신으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의 노하우와 실천적 모델을 만들게 되었고 2002년 CLEAN-3D사업의 초석이 되었던 것이다. 또 하나 인생의 소중한 교훈을 얻었는데 옳고 필요한 일에는 돕는 사람들이 많고 이들간의 협력과 조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CLEAN-3D사업 첫째는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던가? 내 기억에는 IMF의 터널보다 더 긴 느낌이었다. 그래도 이 사업이 서울시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들의 염려대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한 노동력이 유지되도록 국가적 산업보건관리의 하나로 이어진 것이 가장 기쁘고 앞으로 든든히 뿌리가 내려지길 바란다. 이 사업은 성급한 평가보다는 이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술과 프로그램의 개발에 재정지원과 사업기관간의 협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산업간호협회는 이 사업이 3년째에 접어들면서 안정기로 들어섰고 체계적으로 자발적인 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믿음직스럽다. 끝으로 산업보건계의 만형인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이 사업이 체계화되는데 앞장서며 민간단체간의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데 구심점이 되길 바란다. 그래서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고유한 소규모 사업장 모델이 아시아지역과 세계와의 무역거래에서 산업안전보건의 표준모델이 되며 의료시장개방에서도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보루가 되길 기대한다. **김**